

# ‘K-에너지’ 나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본격화

에너지국가산단·노안 일반산단 등 396만㎡ 공급 체계 구축  
용수·전력 갖춘 미래산업 거점…“에너지 수도 중심지 도약”

나주시가 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를 앞세워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396만6942㎡(120만평) 규모 산업단지와 용수·전력 인프라를 갖춘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에서는 장현철 자문관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강상구 부시장을 비롯해 노관숙, 나철웅 자문관 등이 참석해 향후 투자유치 로드쇼 추진, 기업인구 정치권 인사 초청, 성공 사례 공유 등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에는 강상구 부시장과 3개 국장, 투자유치 자문관 4명(노관숙, 장현철, 김문석, 나철웅),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 전력 반도체

기업 ㈜디시오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유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에너지국가산업단지 66만1157㎡(20만평)와 노안 일반산업단지 330만5785㎡(100만평) 등 규모의 산업단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용수와 전력 문제 역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수 교수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는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인공지능 연구시설, 국립나주 에너지과학관,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다”며 “RE100 산업단지의 신뢰도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



나주시는 최근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식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의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다”고 평가했다.

강해민 한국에너지공단 교수도 “나주는 훌륭한 교육인프라와 교통 및 도로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 집중할지, 비메모리 분야에 집중할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춘다면 삼성 계열의 전력반도체 기업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과 전력 거래 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기술 적용을 포

함한 단계별 실행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396만㎡ 규모 산업단지와 용수·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RE100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수도 나주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군민 삶의 질’ 개선

유증중바이러스 예방접종·고기밥상데이·일상동행 본격 추진

강진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에 군민 건강과 복지,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3건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기금사업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군은 사람유증중 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지원 확대 사업을 시행,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제공되던 예방접종을 성인 여성과 남성까지 확대해 HPV 감염 예방과 자궁경부암 등 관련 질환의 조기 차단을 도모한다.

또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 운영 사업도 논길을 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을

위해 읍·면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고기 반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영양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전망이다.

‘강진품에 기댄 일상동행 서비스’도 시작된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노약자,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 속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식사

·청소·발벗 등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행 서비스다.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고향사랑기금은 군민의 건강과 일상 속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했다”며 “기부자들의 뜻이 강진군민 모두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 장성, 농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금 확대

최대 300만원…슬레이트 지붕은 700만원

장성군은 오랜 기간 방치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부속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이 이를 직접 철거할 때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호당 철거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33% 증액, 올해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이라면 가구당 최대 700만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초과 발생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지원 신청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지참해 해당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근 파악된 장성 지역의 농촌 빈집 규모는 총 542동이다. 장성읍이 79동으로 가장 많고 북하면 70동, 남면 61동 순이다. 빈집이 가장 적은 곳은 서삼면(35동)이다.

1998년부터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총 1452동을 정비했다.

군은 농촌 빈집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이나 건물을 군이 임대한 뒤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빈집 정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중 군수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마을 분위기를 쾌적하게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며 “살고 싶은 농촌, 머물고 싶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한범 기자 ihb6699@

## 함평, 찾아가는 ‘한방통합 건강증진사업’

의료 취약지역 주민 접근성 ↑…맞춤형 서비스

함평군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부권역 한방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열린 행사에는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요 내용은 한방진료와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 경옥환 만들기 체험을 통한 한방 건강관리, 염색·피부관리, 손발 마사지·네일아트 등 미용 서비스, 웃음 치료, 건강 체조 등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

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수준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군수는 현장에 직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확대해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부권역 한방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했다.

## 영광,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내달 10일까지 참가자 접수

영광군은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한 ‘2026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가 연수생과 선도농가를 2월 10일까지 5팀을 모집한다.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은 농업기술과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연수생 참가 조건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귀농 5년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의 청년층, 공인된 기관에서 귀농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예비 귀농인 등이다.

선도농가는 지역 내 신지식농업인, ICT 활용농가,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창업농업경영인 등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 기술, 교육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초보 귀농인을 위한 경우, 3년 이상 영농경력을 지닌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3~7개월간 진행되며, 하루 4시간, 월 최대 80시간 이내에서 실습이 이뤄진다. 출결은 스마트폰 출석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며, 실습은 단순노동이 아닌 기술 습득과 창업준비에 중점을 둔다.

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가에는 연수생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교육지원비가 지급되고, 실습일수가 월 10일 이상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350-4993)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gp98@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모습.

## 여수, 지방세외수입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행정 혁신 인정…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 마련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6년 연속 최우수(우수) 등급을 달성해 전국 최고의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 ‘변호판 영치-대표차 연계’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관리, 납세자 편의의 중심의 소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추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시민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실질적인 재정 확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재정 성과를 넘어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무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외수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